



우리시대 참스승

금주초등학교 교장 김영상

소규모 희망학교 가꾸기 대상 학교로 선정

인성교육 · 학력신장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꿈과 희망으로 찾아오는 농촌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소규모 학교 학생의 다양하고 폭 넓은 학습경험을 제공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여 꿈과 희망으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 교육과정의 특성화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폭넓은 학습 경험과 교육기회 제공 ▶ 지역사회 교육 문화 중심센터로서의 찾아오는 학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는 학교발전기금도 적고 국가에서의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의 경우도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중일반 교사를 지원해주는 반면, 2학년 이하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자격 있는 사람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초빙교장으로 금주초등학교 부임한 김 교장은 돌아오는 농촌학교 신청서를 제출하여 3년동안 지원 받게 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특히 교과서에 나오는 나무, 꽃, 식물 등 중심으로 자연학습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들의 칭찬을 받기도 했다.

또 학생들에게 틈새, 느티나무 교육을 통해 다양한 특기적성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방학동안에 실시하는 느티나무 교육은 영어영재반을 신설하고 서울대에서 실시하는 PELT시험을 대비하여 철저하게 공부하고 있다. 수학영재반도 개설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자 교육 또한 포천노인회의 지원을 받아 용연서원 양기원 원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하고 있다.

학생들의 적성검사도 실시하여 진로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마다 1천만원씩 지원될 예정인 자연학습장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체험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김 교장은 과학실을 직접 꾸며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육성하고 있는 김 교장은 "교육은 교사들만의 몫이 아니고 지역과 학부모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발전은 물론 학교교육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상은 금주초등학교 김영상(57)교장이 농어촌 소규모 희망학교 가꾸기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사업 추진계획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 교장은 나의 책 만들기과 독서교육 강화 노력으로 올해 100대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각종 자격증 취득은 물론 급수 확보로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를 평소 좌우명으로 삼아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과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성시 공도초등학교, 공도중학교, 평택 한광고등학교, 인천교육대학을 나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김 교장은 고3 담임교사의 권유로 교육대학에 진학하여 교직에 입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 당시 고3 담임선생님의 팔손 잔치를 제자들이 직접 차려드렸다고 한다.

안성 문기초등학교에 첫 부임한 이후 부천북초, 삼곡초를 거쳐 강화도 신성초, 삼산초, 송해초, 부천 도당초, 원미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 승진해 군포 금주초, 부천 도원초에 근무한 후 교장으로 승진하여 포천 관인초등학교에서 2년 근무한 후 금주초등학교에 초빙교장으로 부임했다.

송해초, 부천 도당초, 원미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 승진해 군포 금주초, 부천 도원초에 근무한 후 교장으로 승진하여 포천 관인초등학교에서 2년 근무한 후 금주초등학교에 초빙교장으로 부임했다.

김 교장은 학교는 학생들의 인성을 길러주고 학력을 신장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사는 수업기술 향상을 위해 항상 연구해야 한다. 학교 직원간의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나서야 한다.

만약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현재 도시학교 위주로 되어 있는 교육정책을 소규모 농촌학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도시의 대규모 학교는 학교발전기금도 많이 들어오는 등 예산이 충분해 국가에서의 지원이 더해져서 다양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소규모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2월23일 10시에 3월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265명의 신규교사 시·군 배정서 수여식을 실시했다.

이날 임용된 교사는 초등 165명, 사서 2명, 유치원 60명, 특수 38명 등 265명이다.

제2청 대강당에서 거행된 수여식에서 김석희 교육국장은 "새내기 교사들에게 축하와 함께 밝은 웃음과 성실한 자세로 교직의 첫 걸음을 시작"하기를 부탁하였으며, "감동을 주는 교사가 되기 위한 부단한 자기연수 또한 당부"했다.

또한 신규교사들은 제2청사에서 배부한 경기도교육청 로고마크를 가슴에 달며 희망 경기 교육의 주역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교육의 희망' 신규교사 배정서 수여식



'보내는 서운함, 떠나는 아쉬움'

금주초등학교 제61회 극적인 졸업식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산자락에 위치한 금주초등학교는 지난해부터 졸업식을 하나의 작품으로 연출하고 있어 화제다.

먼저 졸업생 모두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는 졸업생과 재학생과의 연결을 시도했으며 재학생 대표와 졸업생 대표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졸업식은 진행된다.

재학생 대표는 "영광스러운 오늘 빛나는 졸업장을 받으시고 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흔쾌 정이 든 금주초등학교의 교정을 떠나시는 언니·오빠께 진심으로 정을 담아 축하의 꽃다발을 드리옵니다"라고 하자 졸업생 대표는 "더 머물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심정이야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금주초등학교를 떠나야 하고, 사랑스런 아우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을 맞았구나"라고 답했다.



이렇게 말을 주고받은 후에는 재학생들이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노래를 부르자 졸업생들은 "잘 있거라 아우들아..."로 받는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다 함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를 합창한 후 졸업생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고 나서 '어머님 은혜'를 합창한다.

계속해서 졸업생들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재학생들 또한 선생님의 계속적인 사랑을 부

탁한 후 졸업생들의 '스승의 은혜' 합창이 이어진다.

다시 재학생과 졸업생이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말을 주고받은 후에 교가를 제창하며 졸업식이 마무리된다.

이처럼 영상과 극적인 연출을 통한 졸업식을 마친 졸업생들은 20년 후에 펼쳐보게 될 자신의 꿈을 타임캡슐에 담았다.

김영상 금주초등학교 교장은 "지나해부터 학생들에게 졸업식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새기기 위해 색다른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며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학생들의 졸업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고추장 그리고 쟸



박하은 학생 3학년

의할머니,아빠,엄마와 나 우리 가족은 시골에 살고 계시는 이모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다. 이모 할머니 생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모할머니 댁은 시골이라서 농촌체험하기 좋은 곳이다. 이모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쟸를 만들고 계셨다. '쟸 쟸' 하겠지만 읽어보면 알 것이다.

정말 나는 고추장 만드는 것을 처음 보았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마침 만들고 계셨다. 셋째 삼촌께서 아주 큰 주걱으로 열심히 고추장을 찧고 계실 때 정말 힘들게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모할머니께서 고추

장을 담으시는 것을 보고는 나의 사촌동생 재운이가 갑자기 와! 무슨 쟸이 이렇게 많냐고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박웃음을 지었다. 내 사촌동생은 여러종류에 하얗다. 우리는 고추장 쟸를 작은 단지에 모두 나누어 담고 맛있는 쟸를 먹었다. 우리 가족은 늦은 저녁까지 이모할머니 댁에 있었다.

아빠는 저녁밥을 드시고도 허기가 지셨는지 고추장을 구워 먹자고 하셨다. 그래서 처음으로 고추장을 구워 입가에 시키면 수업을 그리며 정말 맛있게 먹어 보았다.

우리 이모 할머니 댁은 통나무장작을 때는 난로에서 영광스럽게 고추마를 구워 먹고 온 쟸이다.

아! 겨울밤에 군 고추마가 이렇게 맛있는 쟸야! 또 이모할머니께서는 우리가족이 집으로 돌아오는 때는 떡, 만두 등 급배방아 쟸는 쌀이랑 현미, 된장, 그리고 떡볶이 많이 해머라 하시면서 고추장 쟸 등을 많이 쟸아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이모할머니 댁에서 즐겁게 보내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가족 여행기

혼저 읍서예



김연수 학생 4학년

큰 기대를 했었던 것일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가족 모두가 준비하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정말 안개에 걱정을 많이 하였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내리안개 질투에 결국 비행기는 결항이 되고 말았다. 이 문제로 시민들 모두가 불편을 겪었다.

오전 7시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했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겨우 오후 3시30에 떠나는 비행기를 탔다. 다행히 오늘 인제는 제주도에서 와서 기분이 좋았다.

가다리치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아름다운 섬 제주 구경도 못했을 것이다. 비행기를 4학년 이후로 두 번째로 타보았는데, 또 다른 느낌이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늘 위로 날아오를 때 창문 아래로 비춰지는 구름과 운치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가는 내내 창문 아래를 보고 또 보았다. 공항에서 많이 기다려서 피곤했지만, 제주도에 가려는 부푼 마음 때문인 것 같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기사아저씨를 바로 만나서 밥을 먹고 매직월드를 구경하고 별장에 도착했다. 기대이상으로 별장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좋았다. 오늘은 웬지 잠이 안 올 것만 같았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기사아저씨를 바로 만나서 밥을 먹고 매직월드를 구경하고 별장에 도착했다. 기대이상으로 별장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좋았다. 오늘은 웬지 잠이 안 올 것만 같았다.

오늘 일정이 바빠서, 제주도의 모든 곳을 둘러 봐야하기 때문이다. 코끼리 쇼도 보고 말도 타고 제주도의 또 다른 섬 우도란 곳도 가야하기 때문이다. 말을 탈 때는 정말 기분이 상쾌하였다. 내가 마치 공주가 되어 타는 내내 말을 모는 것만 같았다.

제주도의 푸른 벌판을 바람을 내뿜으면서 푸른 초원 위를 뛰어다니며 상쾌한 봄 내음을 맡았다. 말굽소리에 따라 내 마음도 흥겨워졌다.

그리고 우도로 가는 배에 내 몸을 실었다. 바다를 보는 내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그저 푸른 바다에 내 마음이 트였다. 바람을 가로질러 배가 파도를 뿌리면서 파도소리를 들으니, 그간 쌓였

던 고민과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여행이란 좋은 것 같다.

많은 것을 보면서 내가 더 느껴보고 관찰하면서 나와 가족을 더 생각해보고 나에게 대해 많은 배우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우도의 섬 아래서 바라본 아래 바다는 정말 멋있었다.

제주도에는 3가지가 많다고 하는데, 바람, 물, 여자가 많았다. 여자는 점점 많아져 남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긴 하지만, 바람은 무척 많이 불고 물은 많이 돌아다.

특히 발사대를 이루는 제주도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물감을 많이 보였다.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돌담은 거센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단단하였다. 바다에는 검은 돌이 가득하였다.

마지막 날은 분재 예술원에 갔다. 여기 안내원이 설명해주는 나무를 모두 신기하였다. 무엇보다 안내원언니가 말을 너무 잘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나무였다.

500년 된 한나무는 그 자체로의 아름다움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왔다고 한다. 겉의 표면의 겹질이 단단하게 하기 위해 해충의 피해를 막아 석고를 묻혀 단단히 굳히고 휘황찬란하게 꾸민 한나무 가지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생

각했다.

내면의 아름다운 한나무는 비록 삶이 있을 때는 향기가 나지 않지만 죽어서 향기를 낸다고 한다. 꼭 사람처럼 자신의 일생을 향으로써 말해주고 싶어서일까?

생각의 관점을 조금만 바뀌도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바뀌어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고 하였다. 여행을 통해서 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이제는 나도 나에게 대해 잘 몰라서 한나무처럼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향을 피우지 않고 죽어서 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내 마음의 향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여행을 하면서 무엇보다 나의 부모님이 고생을 하셨을 것이다.

지금은 살기가 좋아져서 먹고 사는 것 보다는 여가생활과 문화 활동을 즐겨 하면서 넉넉한 삶을 보내고 있다. 부모님의 노력과 고생을 잊을 때가 많다.

하지만 난 항상 생각한다.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행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함께 공부해요

明長幼之序 ⑮

(장유간의 질서를 밝힘)

年長以倍則父事之 하고 十年以長則兄事之 하고 五年以長則師隨之 나라.

년장이배즉부사지 하고 십년이장즉형사지하고 오년이장즉수지나라

(長어른장. 이 글에서는 나이가 많은 것. 倍곱배. 則이때. 隨 따름수. 則법칙적. 즉)

나이가 곱절 많으면 아버지 형처럼 섬기고, 십 년이 위라면 형처럼 섬기며, 오년 위라면 어 깨를 나란히 하여 권되 조금 뒤 떨어져 따라 간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여 받드는 것은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지켜야 할 바른 도리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질서가 엄격하게 지켜졌다. 나이가 십오년 위라면 아버지와 같은 연배(父執)라고 하여 아버지처럼 받들었다. 반드시 경어를 쓰고 오랜만에 만나면 절을 했으며, 그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술을 주면 감히 대작(對酌)을 못하고 돌아앉아 마셨다. 십 년이 위라면

형 대접을 했다. 이 글에서는 오 년이 위라면 어깨동무를 한다고 했지만, 여덟 살이나 아홉 살까지도 벗으로 했다. 연소한 사람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도 양지(良知)속한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문의:011-354-6485)



양주승 본지 지문위원장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미국영어



■ 방문

- 1. <방문예약> : (1) * <조 언> : 방문약속은 대개 전화로 한다 * 오전 10시에 회사로 방문하고 싶은데요 1) 아이드리아트씨유 인유어오후스 앳텐에이엠 <I'd like to see you in your office at 10 a.m.> 2) 캐나씨유 인유어오후스 앳텐에이엠? <Can I see you in your office at 10 a.m.??> 3) 메이이비지 유어오후스 앳텐에이엠? <May I visit your office at 10 a.m.??> * 선약이 있는데요 1) 아임쏘워, 아이해브 앤인게이지먼트 <I'm sorry, I have an engagement.> 2) 아이해브트미 썸바디어텐 <I have to meet somebody at 10.> 3) 아이해브 프뤼비우스 어포인먼트 <I have a previous appointment.> * 회의가 있어서요 아임쏘워, 아이해버미팅엔 <I'm sorry, I have a meeting at 10.> * 그 시간엔 아주 바빠서요 아일비 베퍼뤼비지타임 <I'll be very busy that time.>

문의 : 윤 중 성 (017-723-4977)cdlyoon@nate.com